연구논문 ▮ 『항도부산』 제38호, 2019. 8, 285~323 DOI : https://doi.org/10.19169/hd.2019.8.38.285

유엔기념공원의 중층적 정체성과 구조적 문제점*
-묘역의 공간구성과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정 성 윤**

| 목 차 |

Ⅰ. 서론
Ⅱ. 유엔기념공원의 중층적 정체성
Ⅲ. 유엔기념공원의 구조적 문제점
Ⅳ. 결론 및 개선을 위한 제언

| 국문초록 |

한국전쟁기에 건립된 유엔기념공원은 유엔군 전몰장병을 위한 군사묘지로 만들어졌으나 부산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2000년대 이후 기념과 교육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넓히고 있다.

유엔기념공원이 지닌 묘지, 도시공간, 기념시설이라는 세 층위의 정체성은 서로 간섭하거나 길항하며 중층적으로 작동한다. 본래 이 군사묘지는 추도의 공간으로서 일상의 공간과는 구분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 묘역 일대에서 지역개발이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유엔기념공원의 '묘지'로서의 정체성은 숨겨지거나 완화되었

* 이 논문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2018 피란수도 부산 논문 공모전' 입상 논문을 보완한 연구임.
** 독일 할레-비텐베르크대학교 박사과정 / sungyounchung@gmail.com

고, 그 대신 이 공간은 녹지 및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며 '도시공간'의 일부로 거듭났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이 공간은 유가족 이외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공간'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는 냉전 시기의 전쟁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묘지의 특징이 여전히 강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공간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엔기념공원의 공간구성과 의미구조가 기념공간으로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엔기념공원의 공간구성은 기념의 대상인 외국인과 기념의 주체인 한국인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내므로, 한국인의 기념공간으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냉전 시대의 전쟁인식을 무비판적, 관습적으로 제시하는 공간구성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매장된 전몰장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문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유엔기념공원은 인접 도시공간 및 다른 기념시설들과의 의미있는 연계가 미비하여 이 장소가 기념공간으로서의 갖는 한계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으로서, 본 연구는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동시대적,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의미상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는 구체적으로 공간구성 개선 및 주변 시설들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유엔기념공원, 군사묘지, 기념시설, 한국전쟁, 부산

Ⅰ. 서론

유엔기념묘지(UN Memorial Cemetery)는 한국전쟁 중 전사한 유엔군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장소이다. 전쟁 중인 1951년, 최후방인 부산에 건립된 이 묘지는 그 자체로 한국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이며, 유엔을 통한 국제협력의 상징이고, 참전 장병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 평화 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2000년대 이후 유엔기념묘지는

국문 명칭이 '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되었고, 묘역 내부의 재정비와 부속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묘역과 인접한 지역에도 유엔기념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섰다. 이에 따라, 전몰장병의 묘지이자 유가족을 위한 추도의 공간으로서 마련되었던 유엔기념공원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전쟁의 의미와 그 피해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념과 역사교육의 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기념공원의 공간구성 및 의미구조는 여전히 '묘지'일 때의 그것에 머물러 있다. 군사묘지에서 전몰장병은 '적'에 맞서 '평화'를 지키려다 희생된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이들로 설명된다. 한편, 이 공간에서 평화나 부전(不戰)의 결의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군사묘지는 전쟁 중 전몰장병이 수행한 활동을 인정하고 영광을 부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묘지에서는 과거와 현재, 전쟁과 평화, 적군과 아군 사이의 구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과거의 전쟁이 전몰장병의 희생을 통해 현재의 평화로 이어졌다는 서사가 제시된다. 전몰장병의 희생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와 같은 서사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실감을 보상하는 방편으로, 대부분의 군사묘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묘지에 묻힌 전몰장병의 유해와 그들의 묘비가 증언하는 전쟁의 기억이란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묘역 안팎의 부속시설들은 죽음을 둘러싼 정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죽음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서 방문객들이 추도의 목표에 공감하고 전쟁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다. 그러나 유엔기념공원의 공간구성은 군사묘지라는 정체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전몰장병의 묘지라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군사묘지의 서사를 지탱할 뿐, 이 군사묘지의 전쟁 인식을 당연하거나 자명하

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방문객을 설득하거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목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엔기념공원이 외국인 전몰장병이 묻힌 군사묘지라는 점은 한국인 방문객이 이 공간을 더욱 낯설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의 현충원을 비롯해 각국의 국립 군사묘지에서는 전몰장병과 방문객이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사회의 일원이었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이 설명을 통해 방문객은 죽음의 정황을 이해하고, 전몰장병이 처한 상황에 스스로를 대입해보면서 희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향후 자신이 국가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유엔기념공원은 외국인의 군사묘지이며, 이 점에서 기념의 대상(외국인)과 기념의 주체(한국인)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난다. 기념일이나 국제회의를 계기로 묘역을 참배하는 참전국 대표자나 참전용사에게 유엔기념공원은 자국민이 묻힌 군사묘지로서 이 공간의 의미와 가치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한국인 방문객이 외국인 전몰장병의 묘역에서 느끼는 바는 외국인 참전용사가 이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과 같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한국인이 현충원에서 느끼는 감정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유엔기념공원 안팎의 공간구성은 이와 같은 공간적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인 방문객이 이 공간의 목표나 의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군인들의 희생을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설명하는 군사묘지의 구조를 단순히 답습하고 있다. 유엔기념공원의 역할이 전몰장병의 묘지로부터 시민을 위한 기념과 교육의 장소로 확장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점은 유엔기념공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자 향후 비판적 분석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적 상징성과 기념시설로서의 높은 활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유엔기념공원 관리처장을 역임한 이석조의 수기는 묘역의 여러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1] 그러나 학계의 비판적 연구로서는 2013년 다양한 연구가 한 권의 단행본으로 모여 출간된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2] 김선미는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진행했다.[3] 우신구과 백영제는 유엔기념공원 내부의 공간구성 및 건축물, 상징물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4] 이 연구들은 유엔기념공원의 역사나 공간구성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유용한 관점과 분석을 제공하지만,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적 변화와 공간구성의 변화를 종합적인 프레임 하에서 함께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추도시설을 비롯하여, 정치적 의미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고려 하에 설계되는 건축물에서 시설의 목적이나 기능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공간구성의 변화를 동반하며, 그 역 또한 성립하기 때문이다. 한편 하세봉은 유엔기념공원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을 분석했다.[5] 이 연구는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가 추도방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여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이해를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유엔기념공원과 중국 사례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유엔기념공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드러난다. 유엔기념공원의 특징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엔기념공원과 유사한 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례 사이의 공통점을 개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이석조, 『(젊은 영혼들과 함께 한) 천일간의 백서 : 재한유엔기념공원』, 다찬, 2008.
2)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3) 김선미, 「재한 유엔기념공원의 조성 경위와 관리의 성격」, 위의 책, 66~106쪽.
4) 우신구, 「유엔기념공원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조」, 위의 책, 161~192쪽. 백영제, 「공원의 공간 구성 및 전시 조형물의 특성」, 위의 책, 193~216쪽.
5) 하세봉, 「중국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가-항미원조기념관의 경우」, 위의 책, 217~250쪽.

본 연구에서는 유엔기념공원의 의미와 기능 변화에 발맞추어 이 공간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묘역 안팎의 공간구성이 이에 상응하여 변화해 온 정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1951년 건립 이후 유엔기념공원이 수행해 온 기능을 크게 묘지, 도시공간, 기념시설로 구분하고, 이 세 측면이 등장한 역사적 경위 및 각 시기에 발생한 공간구성의 변화상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유엔기념공원의 공간구성과 의미구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 공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법론적 전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엔기념공원이라는 추도·기념공간을 개념적,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유엔기념공원의 중층적 정체성

1. 유엔군 군사묘지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유엔군 전몰장병의 묘지라는 것이 유엔기념공원의 일차적인 기능이자 정체성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각지의 전역(戰域)에 임시 군사묘지가 만들어졌지만, 중공군 개입 및 유엔군 후퇴와 함께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각 묘지에 매장된 유해를 소개하여 후방으로 이송하는 한편 이를 수용하기 위해 부산에 별도의 군사묘지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1월 18일, 유엔사는 미군 이외[6]

6) 모든 미군 유해는 우선 미군 극동사령부 영현등록부대가 위치해 있던 일본 고쿠라(小倉)로 소개된 후, 그곳에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의 유엔군 유해를 수용하기 위해 경상남도 동래군 당곡리(현재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임시 군사묘지를 조성하였다. 종전 이후 이 임시 묘지는 종전 후 유엔군 전몰장병을 위한 정식 묘지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묘지 부지의 선정에는 접근성 및 묘지 조성의 용이성이 고려되었다. 최후방의 부산은 한국전쟁기의 임시수도로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또한 부산은 바다를 통해 유엔군 병력 및 원조물자가 도입되는 창구였는데, 이는 유해의 본국 송환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군사묘지 부지는 본국 송환 과정을 고려하여 감만동이나 우암동 부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용호만에 인접한 갯벌 지대로서 인가가 적었으므로 묘지라는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우려가 적었다. 나아가 묘지가 조성된 대지는 완만한 경지를 이루고 있는 농지였기에 큰 토목공사 없이 묘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 수용 및 묘역 건립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7] 현재의 위치에 유엔군 묘지가 건설되었고, 건립 결정 3개월만인 1951년 4월 6일 개소식을 가졌다.

유엔군 묘지에는 전쟁 중 최대 11,000 여구의 시신이 안장되었으나 현재는 파병국 15개국과 의료지원단 파견국 1개국 등 총 16개국 출신의 유해 2,297구가 묻혀 있다.[8] 국가별 안장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파병 인원 대비 유엔군 묘지 매장 비율은 네덜란드가 가장 높고, 단순 매장 숫자는 영국과 터키가 많다.[9] 미국인 시신은 36기 묻혀있는데, 이들은 모두 휴전 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 소속으로, 본인 또는 유가족의 요청에

7) 유엔군 묘지 건립을 위해 수용된 약 15만 제곱미터 정도의 토지는 당시 50여 명의 지주가 소유한 사유지였으나, 정부는 묘지 조성을 먼저 집행하고 전쟁 종료 후인 56년 9월 재무부 주관으로 토지 대금을 지급했다. 우신구, 앞의 논문, 167쪽.

8)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 http://unmck.or.kr/ (검색일: 2019년 6월 8일).

9) 미국, 필리핀, 태국,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럼비아, 벨기에, 그리스 등 8개국은 전몰장병의 유해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했다.

의해 유엔군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 외에 카투사(KATUSA) 출신 한국인 시신 36기, 신원불명의 유엔군 무명용사 무덤이 4기, 적군으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자의 무덤이 11기 등이 자리하고 있다.[10]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도 이 묘지는 유엔사 관할 하에서 운영되었다. 1959년, 한국 정부와 유엔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묘지가 설치된 토지는 무상으로 유엔에 기증되었다. 묘지의 관리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이하 언커크)가 맡게 되었다.[11] 언커크 관리 하에서 유엔군 묘지는 전사자를 위한 공식적인 기념묘지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미·중간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언커크가 해체됨에 따라, 유엔기념묘지에 자국민 매장자를 둔 국가들은 국제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를 구성하여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존 협정을 존속시키고 언커크로부터 묘역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12] 유엔기념묘지의 운영예산 역시 관리위원국들이 균등하게 분담하게 되었다. 관리위에는 참전국 가운데 유엔기념묘지에 전사자를 안장하고 있는 국가들과 한국, 그리고 전사한 안장자는 없으나 60년대에 사망한 퇴역군인과 군속의 시신을 안장했던 미국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2월 16일부로 유엔군 묘지는 언커크로부터 재한 유엔기념묘지 관리위로 이관되었다. 2001년 이후 묘지 관리 재원에서 한국의 부담금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이 묘역 운영과 관리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13] 이후 한국 정

10) 한국전쟁의 포로교환 과정에서는 시신의 교환도 이루어졌는데, 북한 측에 보낸 시신 중 신원확인 불가를 사유로 돌아온 7구가 유엔기념공원에 매장되었다. 1954년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신원미상의 유해 4구가 유엔기념공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북한군이나 중공군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이석조, 앞의 책, 225~228쪽. 현재 유엔기념공원은 이 11구의 안장자를 '비전투요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 http://unmck.or.kr/ (검색일: 2019년 6월 8일)

11) 언커크는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로 설치된 기구로, 호주,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 등 7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12) 새로운 관리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대해서는 이석조, 앞의 책 , 233~235쪽을 참고.

13) 묘지 관리 재원의 변화는 2000년 미국이 안장자 수에 비례해 비용을 분담하자고 제안

부는 유엔기념묘지의 국문 명칭을 '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하고, 이 공간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였다.

2. 부산의 도시공간

유엔기념공원 주변의 환경은 묘역이 건립된 이후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 임시 군사묘지가 설치된 1951년경 이 일대에는 인가가 드물었고, 주로 농지와 임야가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이 지역에 묘지가 들어선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부산이 동남권 경공업의 중심으로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시 경계가 확장되고 공업 육성을 위해 매립과 도로 확장, 구획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유엔군 묘지가 위치한 지역에서도 매립 사업이 진행되고 공업지구가 조성되었다. 묘역 주변 공간의 개발은 묘역의 정숙성을 해치고 공해 문제를 유발했다.[14] 1959년 체결된 유엔군 묘지 설치에 대한 협정에는 '정숙 유지 조항'이 존재했는데, 묘지관리의 주체인 언커크는 지역 개발이 묘지의 정숙성을 해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유엔기념묘지 주변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는 정숙성 유지를 위해 주변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관리위 측과 개발을 바라는 정부 및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1970년대부터는 유엔기념묘지 인근에 주거지역이 조성되었고[15]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미국인 안장자 비율은 1.5%였지만 비용의 16%를 부담) 이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되, 그 외 비용은 종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그 결과 한국이 총액의 93%, 나머지 국가가 7% 가량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석조, 앞의 책, 116~117쪽.

14) 1967년 가을 이후 매연 피해가 눈에 띄게 늘어, 울타리에 심은 나무의 잎이 시들고 아황산가스 등으로 인해 구리로 된 묘비가 녹슬었다는 점이 보도되었다.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묘역 인근에 동명목재, 부산파이프회사 등 공해안전기준도를 초과한 시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향신문』 1968. 10. 24., '유엔墓地 더럽혀'.

15) 1970년대부터 대연동 일대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1968년 대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작으로 1973년 대연 남북지구 택지조성이 완공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 지역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지역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유엔군 묘지에 관한 협정상의 조항들로 인해 묘역 주변의 지역 개발에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했다.[16] 묘지 관리위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묘역의 정숙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주변 개발이나 경내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17] 한국도 관리위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발언권이 강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주택가 주변에 묘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 또는 묘지의 존재가 땅값이나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점 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유엔기념묘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8]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은 협정상의 정숙성 유지 조항 및 그에 따른 개발 제한, 관리위 측의 강경한 태도, 그리고 거주지 인근 묘지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기념묘지가 도심 속 녹지이자 관광명소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엔기념묘지의 잘 정돈된 묘역 주변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묘역 전체가 항상 꾸준히 관리되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묘역 정문과 전시관을 비롯한 다양한 부속시설이 건설되면서 시설 안팎의 미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엄숙한 추모의 공간인 유엔기념묘지는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이자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다.[19] 또한 부산시는 추도시설과 인접한 지역의 상업적 개

1973-75년 용호지구 정책이주사업, 1979-83 남천동 주거지조성을 위한 매립공사 등이 진행되었다.

16) 예컨대 묘역 500미터 이내에는 4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했다. 이석조, 앞의 책, 158쪽.

17) 이석조, 앞의 책, 139쪽.

18) 이석조, 앞의 책, 25쪽· 325쪽.

19) 추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이들이 묘역의 의미와 정숙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동아일보』 1973. 10. 22., '觀光地로 바뀌는 「유엔墓地」'.

발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 공공정책적 보상 개념으로서 유엔기념묘지 인근 지역에 1970년대 부산박물관, 1980년대에는 부산문화회관을 각각 조성하였다.[20]

이는 도시계획상의 균형발달 및 새로운 주거지구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한 것이면서, 묘지의 정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는 또한 기피시설인 묘지 인근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개발에 따른 이익 실현을 기대했던 이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완화하고자 했던 시도로 이해된다. 나아가 2001년 한국정부는 유엔기념묘지의 국문명칭을 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했는데, 이 또한 묘역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21] 이후 고철상, 자동차정비업, 화물차 주차장 등 소음, 분진, 토양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체가 자리해 있던 유엔기념공원 동남쪽 일대에서 환경 정비 및 유엔조각공원(2001)과 유엔평화공원(2005) 조성이 이루어졌다.[22] 또한 2009년 이 일대가 유엔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되는 등, 이 지역에서는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UN평화공원, UN조각공원,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박물관, 인근 대학가 등 문화공간의 벨트화가 이루어져 왔다.

3. 시민을 위한 기념시설

유엔군 묘지는 전몰장병의 유가족이나 출신 국가의 대표자를 주된 방문객으로 상정하는 공간이었다. 그에 따라 유엔군 묘지는 전몰장병

20) 1975년 11월 부산박물관 신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1988년 7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준공, 1991년 11월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및 회의장, 연회장 준공이 이루어졌다.
21) 김선미, 앞의 논문, 95쪽. 우신구, 앞의 논문, 174쪽.
22) 이 녹지의 명칭에 유엔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유엔기념공원과 인접해 있다는 점 때문이며, 그 외에 공원의 조형적 특징이나 기능과 유엔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개개인의 묘비와 함께 각 국가나 전쟁과 관련된 상징물, 혹은 전몰장병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물품(유품 등)을 배치하여 유가족에게 애도(mourn)의 기회를 제공했다. 각국 대표자가 묘역을 방문할 때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공감을 표하며 희생의 의미를 평가했고, 이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이자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했다. 지금까지도 묘역 곳곳에서는 전몰장병에 관한 물건이나 가족들의 편지, 사진 등이 배치되어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년 종전기념일이나 유엔의날 등의 의례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도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한국 정부가 묘지 운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유엔기념공원은 유가족들의 추도공간을 넘어 유가족이 아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commemoration)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기념공원은 유가족이 전몰장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거나 희생의 의미를 확인하고 위안을 얻는 공간을 넘어, 전쟁을 기억하지 못한 세대에게 한국전쟁의 기억을 전달하고 이 기억을 공동체의 공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공간으로서 새로운 목표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있어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정상회담은 특히 중요한 계기였다.

이 시기 부산을 방문하는 각국 정상이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정부는 큰 규모의 특별예산을 편성하고 유엔기념공원의 시설을 개·보수했다. APEC 정상회담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했고, 묘지에 별도의 국가별 기념비를 만들지 않았던 국가들도 정상회담을 전후로 자국의 참전을 기리는 기념비를 신규 설치하여 이를 통해 유엔기념공원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APEC 정상회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엔기념공원에는 다

양한 부속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APEC을 전후하여 새롭게 들어선 시설들은 전쟁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해소하는 추도의 공간이 아니라, 전후 세대가 희생의 의미를 숙고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기념의 공간으로서 건립되었다. 새로운 시설들은 의례가 이루어지는 상징구역이나 대부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주묘역 등 기존 유엔기념공원의 중심부를 피해, 1978년 건립된 위령탑을 제외하면 대체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던 녹지지역에 들어섰다. 녹지지역에는 2006년 전몰장병 추모명비가 건립되었고, 4만여 명 전사자의 이름을 모두 새겨넣은 명판을 통해 희생의 막대한 규모를 부분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모명비가 건립됨에 따라 기존에 전사자명단이 위치해 있던 위령탑을 재정비하여 2007년 제2기념관을 조성했다. 2008년에는 무명용사의 길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유엔기념공원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해설사가 상주하며 방문객에게 시설과 관련된 설명을 제공하게 되었다.

APEC 전후 각국에서 건립한 기념비, 혹은 한국 정부에서 건립한 부속시설들은 전몰장병을 칭송하고 희생에 국가적 가치를 부여하는 비문이나 헌사를 포함하고 있다. 전몰장병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부여는 유엔군 묘지 조성 이후 이 공간에서 일관되게 드러난다. 사실 이는 근대국가의 군사묘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으로, 유가족의 손실이 국가적 과업의 수행이라는 더 큰 가치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내셔널리즘을 고양하는 기능을 수행했다.[23] 그런데 유엔기념공원은 다국적 연합군의 묘역이므로, 각국 묘역에는 자국민의 희생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념비가 존재할지라도 묘역 전체를 볼 때에는 특정한 한 국가의 내셔

23) 전몰장병 개개인의 죽음에 국가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근대적 추도시스템의 성립을 통해 전형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스를 참고. George Mosse, *Fallen soldiers: Reshaping the memory of the world w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널리즘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이 공간에서는 유엔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소개되고, 여기 묻힌 이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성스러운 임무를 다한 이들로 소개된다. 이를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1970년대에 묘역 인근에 건설된 유엔참전기념탑이다. 탑의 문구에서 유엔군은 십자군으로 표현된다.

2000년대에 건립된 기념비 및 부속시설들 역시 이와 같은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전몰장병에 대한 의미부여에 있어 묘역 내 시설들 사이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1차대전 이후 등장한 전몰장병에 대한 의미부여 방식이 비판이나 개선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자유와 평화 등의 가치가 한국전쟁 및 냉전 시기의 진영논리를 바탕으로 정치적 도구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유가족 시민 방문객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2010년대 이 지역이 유엔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는 '유엔'과 '평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섰다. 유엔기념공원은 이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이자, 기념과 역사교육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시설들의 의미상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4년 개관한 유엔평화기념관은 한국전쟁에서의 유엔군 활동상을 다루는 전시공간으로 유엔묘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유엔 활동(예컨대 평화유지 활동)을 다루는 전시관의 규모나 중요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녹지에 해당하는 유엔평화공원이나 유엔조각공원, 또는 2013년 개관한 강제동원역사기념관 등은 묘역과 기능상의 연계는 없으나 '유엔' 또는 '평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간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

4. 소결: 유엔기념공원의 중층적 정체성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 공간을 둘러싼 세 층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 중 유엔군 군사묘지로서 조성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부산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묘역 주변 지역에 공업 및 주택지구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개발논리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묘지로서의 정체성은 숨겨지거나 완화되어야 했다. 그에 따라 이 공간은 묘지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녹지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았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유엔기념공원은 유가족 이외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을 갖추면서 기념의 공간으로 거듭났고, 묘역 안팎에 다양한 부속시설 및 관련시설이 들어서며 다양한 기념 및 역사교육시설의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유엔기념공원에는 한국전쟁 이후 시간의 경과, 그리고 부산의 공간적 확장 과정에서 상이한 의미와 기능들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이 의미들은 서로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점에서 다층적이라기보다 중층적이다. 이 공간의 묘지라는 특징과 도시공간의 일부라는 특징이 서로 충돌했던 것이 보다 오래된 문제라면, 유가족을 위한 추도공간이었던 장소가 비유가족 시민 방문객을 위한 기념의 공간으로 변화하며 나타나는 의미상의 교착은 현재의 문제이다. 부산의 개발 및 확장 과정에서 유엔군 묘지를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묘지로서의 측면과 도시공간으로서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현시점의 분석을 위해서는 묘지로서의 성격과 기념시설로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Ⅲ. 유엔기념공원의 구조적 문제점

1. 외국인의 묘지

유엔기념공원의 목표와 기능, 그리고 공간구성의 변화에 따라 이 시설의 정체성과 현실적인 기능 사이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 누적되었다. 이 문제들은 단기적,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 본래의 기능인 묘지라는 측면이 차후 이 공간에 새롭게 부여된 도시공간 또는 기념시설이라는 새로운 기능 내지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나타나게 된 구조적 문제들이다.

첫째, 유엔기념공원의 공간구성은 군사묘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이 공간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한 기념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 공간은 본래 한국전쟁에 참가한 유엔군 소속 외국인 전몰장병의 묘지이자 유가족을 위한 추도공간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시민 방문객을 위한 기념시설로 기능하게 되었다. 기념일이나 외국 정상의 방한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이 묘지에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참배객들이 추도를 목적으로 유엔기념공원을 찾게 되지만, 유엔기념공원 방문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인이다. 이에 따라 이 공간의 의미상의 특징과 기념시설로서의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 시설이 한국인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묻혀 있는 묘지라는 점에서 문제의 중대성이 극대화된다.[24]

유엔군 묘지는 근본적으로 전몰장병 및 그 유가족을 위한 공간이었

24) 외국인이 국가적 추도의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여러 국가의 군사묘지 현황 및 상호비교를 위해 헤틀링을 참고. Manfred Hettling & Jörg Echternkamp(ed.), *Gefallenengedenken im globalen Vergleich. Nationale Tradition, politische Legitimation und Individualisierung der Erinnerung*, Berlin: De Gruyter Oldenbourg, 2013.

고, 다른 군사묘지들과 마찬가지로 전몰장병의 죽음이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손실이지만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었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유가족들에게 있어 이 공간에 통용되는 논리와 가치는 슬픔과 상실감에 대한 보상이자 위로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 역시 다른 군사묘지들과 마찬가지이지만, 이 공간에서 전쟁과 폭력에 대한 성찰 또는 부전의 결의, 반성, 또는 고발은 찾아보기 어렵다. 평화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승리의 결과물로 제시된다.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한국전쟁이나 전몰장병들과 시간적, 정서적 거리를 느끼며, 특히 전쟁 시기의 피아식별과 냉전 시기의 진영논리를 바탕으로 아군 전몰장병의 행위에 숭고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낯설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전쟁과 희생의 의미를 설명해 온 방식은 현 세대의 방문객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이 공간의 주된 방문객으로서 기념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에게 '외국인'이 묻혀 있는 유엔기념공원은 기념의 주체와 기념의 대상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는 유엔군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경과와 희생을 전달하며, 한국인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도움의 수혜자로 나타난다. 이 공간에서 한국인 방문객은 전쟁경험의 한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수혜자라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외국인 전몰장병을 추도하는 입장에 처한다. 유엔군 묘지에서는 보통의 군사묘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성취했다는 서사가 제시된다. 그러나 희생과 승리의 주체로 드러나 있는 것은 조상이나 자국의 역사적 인물, 혹은 방문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족이 아니라 혈연적, 정서적 접점이 없는 외국인 군인이다. 이 공간에서 평화는 외국인들의 희생과 승리의 결과물로 설명되며, 한국인 방문객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처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상정하는 질문에 답을 구하기

어렵다. 이 점은 기억에 현재성을 부여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기념공간으로서는 매우 큰 약점이다.

2. 묘역 공간구성 및 의미의 상충

유엔기념공원은 다국적 연합군의 묘지로서 기념의 중심이 국가별로 산재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 묘역의 의미상의 중심은 유엔기이지만, 각국 단위의 의례에서는 자국 묘역의 기념비가 중심이 된다. 의미상의 중심이 되는 상징물이 소박하고, 의례의 중심이 되는 기념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점은 연합군 묘지이기에 나타나는 공간구성상의 독특한 측면이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방문객이 이 공간의 의미를 수용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묘역 내를 총괄하는 동선이나 참배의 방향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은 묘역 내 단일한 설명구조의 부재로 이어진다. 정문을 통해 묘역에 진입한 방문객은 상징구역과 주묘역 사이로 난 길을 통해 묘역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며, 이후 설계된 동선이 아니라 우연을 통해 묘역 곳곳의 기념비나 부속시설을 발견하게 된다. 방문객은 한국에는 드문 평장식 묘비가 산재한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을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상의 보다 깊은 이해를 갖추기 어렵고, 예컨대 전체 묘역의 공간구성이나 각국 묘역의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다. 묘역 내 전시관과 추모관은 규모가 작고 전시물도 소박한 편인데, 이는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을 방문한 방문객이 느끼는 낯섦과 거리감을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유엔기념공원의 공간구성은 깊은 이해, 나아가 비판적 독해를 요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물리적 공간구성이 기념비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묘역의 의미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유엔기념공원 내 모든 기념비에서는 전몰장병이 자유

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인식이 일관되게 드러나지만 이는 실상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큰 가치를 위해 전몰장병이 '기꺼이' 희생했다는 점은 이 공간이 제시하는 역사인식이자 이 공간의 의의를 설명하는 서사이고 전몰장병에게 감사를 표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서사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단순화된 설명이다. 이 점은 유엔군 유해의 송환과 안장 사이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영연방 소속 국가의 유해 중 75%는 유엔군 묘지에 묻혔고, 이에 따라 영연방에 속한 영국, 캐나다, 호주는 유엔기념공원의 단일 국가 묘역으로서는 1, 3, 4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한다.[25]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전적지에 묘지를 조성해 매장하는 것은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보유했던 영국군의 전통이다.[26] 한편 전사자들 가운데 연고가 없거나, 가난한 국가의 병사들이거나, 식민지 출신 병사 또는 용병이었던 이들은 송환되지 않고 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27] 특히 네덜란드와 프랑스군 중 식민지 출신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28] 조성 초기 묘역의 황량했던 모습 역시 송환되지 못한 유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29] 또한 유엔기념공원에는 적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11구의 유

25) 영국은 884구로 가장 많은 안장자를 두었고, 캐나다는 378구로 세 번째, 호주는 281구로 네 번째로 많은 안장자를 두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묘역은 462구의 안장자를 둔 터키이다.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 http://unmck.or.kr/ (검색일: 2019년 6월 8일).

26) 영국군은 크림전쟁 중에도 현지에 묘지를 조성했고, 인도에서는 동인도회사가 인도 각지의 영국인 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했다. 홍콩에도 영국군 묘지가 존재한다.

27) 김선미, 앞의 논문, 80쪽.

28) 예컨대 130명의 수리남 참전장병 중 전사자 유해 두 구가 네덜란드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안장자 44명 중 7명의 묘비명에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승달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이 7명은 알제리 등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또한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칠레 국적 전몰장병의 유해도 안장되어 있다. 김선미, 앞의 논문, 77~78쪽. 『한겨레신문』 2004. 6. 17., '한국 온 프랑스 문화사학회장 파스칼 오리 교수'. 『한겨레신문』 2006. 6. 29., '이름없이 부서진 이들 하나하나씩 불러보자'. 이석조, 앞의 책, 216쪽.

29) 2000년대 한국 정부에 의해 환경미화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유엔군 묘지는 넓은 대지에 묘지에 꽂힌 비목이 전부인 황량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 공간을 방문한 안장

해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유엔기념공원에서 제시되는 서사나 전쟁인식에 포함되지 못하며,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감춰져야 할 대상으로, 공식적으로는 '비전투요원'이라 설명된다.

전몰장병을 둘러싼 정황이나 그들의 유해가 유엔묘지에 묻히게 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안장된 전몰장병들 중 일부는 강제에 의해 동원되었을 것이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도, 본국이 이들을 찾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모두 어떤 고귀한 목적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말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설명일 수 있다. 그러나 유엔군 묘지에서 이들 모두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했다고 설명된다.

유엔기념공원의 대변하는 전쟁 인식과 실제 공간구성이 상충되는 또 다른 부분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사망자 중 미군의 숫자가 가장 많지만 유엔기념공원에 미군 전몰장병 안장자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유엔기념공원 내 기념관과 추모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의 대다수의 전쟁 관련 정보는 미군과 관련되어 있다. 각국에서 건립한 기념비에는 자국의 참전 규모와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엔기념공원 차원의 전시는 대체로 미군의 활동을 유엔군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미군의 참전병력이 가장 많았고, 미군 장성이 유엔사를 지휘하는 등 전쟁을 미군이 주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에 있어 미국과 미군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미군 전몰장병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었기 때문에 유엔기념공원에 미군 전몰장병의 유해는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30]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유엔기념공원 측이 제시하고 있는 설명이

자 유가족이 유해를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 본국 송환을 결정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반대로, 1980년대 초에 묘역을 방문했던 유가족이 훗날 유해 송환을 위해 방문했다가 2006년의 잘 단장된 묘역을 보고 마음을 바꾸고 합장을 요청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이석조, 앞의 책, 223쪽.

이 묘지에 안장된 이들의 구성이나 성격에 잘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실상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여러 국가들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서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1970년대 이후 건립된 위령탑이나 기념비를 통하여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 활동을 자유와 평화를 위한 십자군으로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냉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3. 냉전 시대의 전쟁인식과 기념의 동시대성

2000년대 이후 유엔기념공원은 기념과 의례, 그리고 역사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서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 APEC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묘역 내외부에는 다양한 기념물 및 부속시설이 추가로 건립되었다. 또한 2010년 이 지역이 유엔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이 일대에는 유엔평화기념관과 일제강제동원기념관 등 전시공간을 갖춘 기념시설이 추가로 건립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을 통해,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향후 이 일대가 '유엔'과 '평화'를 중심 키워드로 하는 기억과 기념,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유엔기념공원은 냉전 시기의 한국전쟁 인식이 드러나는 공간이며, 다국적 연합군의 참전 사실을 냉전 시기의 진영 논리에 따라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1951년의 군사묘지 건립 이후부터 APEC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각국에서 유엔기념공원의 자국 묘역에 건립한 기념비는 전몰장병을 칭송하고 희생에 국가적 가치를 부여하는 전형적인 비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충일이나 유엔의날, 1차대전 종전기념일, 혹은 각국 대표자의 방문시 유엔기념공원에서 진

30) 현재 유엔기념공원의 미군 안장자 36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이 종전 이후 사망하며 안장을 요청한 경우이다. 이들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사자 혹은 전몰장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되는 의례를 통해 전몰장병의 죽음의 의미는 국가적 영광이나 군사 작전의 성취와 함께 설명된다. 이는 근대 국가의 군사묘지나 군사의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이며, 유가족의 손실이 국가적 성취라는 더 큰 가치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31] 그런데 유엔기념공원은 연합군의 묘역이므로, 보통의 군사묘지와 달리 어떤 한 국가의 내셔널리즘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고, 타국의 전쟁에 동원되여 사망한 이들이 묻힌 장소이므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서사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그 대신 이 공간에서는 유엔이라는 초국가적 기구와 자유, 평화 등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 공간에서 한국전쟁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소개되고, 여기 묻힌 이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성스러운 임무를 다한 이들로 소개된다. 이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1970년대에 묘역 인근에 건설된 유엔참전기념탑이다. 탑의 문구에서 유엔군은 십자군으로 표현된다.

유엔참전기념탑의 문구는 자국민 전몰장병을 추도하는 각국 묘역의 기념비의 의미를 포괄하여, 전몰장병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에 맞서 목숨을 바쳤다는 서사를 제시한다. 근대적 군사묘지가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며 병사들의 애국심과 용기를 칭송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는 것과 유사하게, 유엔군 묘지에서는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선 병사들의 희생과 용기가 강조된다. 단,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몰장병의 경우, 스스로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들이 희생과 용기를 바탕으로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제시되어야 했다. 유엔기념

31) 전형적인 사례는 1차대전 직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건립된 세계 최초의 무명용사묘지의 비문이다. 이 비문은 '한 영국 전사(A british warrior)'가 사랑하는 가족, 세계의 평화, 영국 국왕, 나아가 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결과 국왕들 사이에 묻히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원에서는 군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고자 한 대상으로 진영 논리와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등장한다. 유엔기념공원 각국 묘역의 기념비들에서는 자국의 군인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구체적인 정황보다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전몰장병의 죽음에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한국에서 건립한 기념비나 전시관도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을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진영과 그 반대 진영의 대결 구도로 설명한다.

유엔기념공원이 냉전 시대의 전쟁인식이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점은, 이 공간에서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통해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의 군사묘지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강조되는 것처럼, 유엔기념공원에서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상징적 가치였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희생에 높은 가치가 부여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동원과 국가의 전쟁수행,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정당화된다. 이는 세계대전을 치른 국가들이 수도의 정치적 중심부에 국립묘지나 전쟁기념물을 마련하고 이를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32]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이와 같은 국가 중심의 기념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거나 저항에 직면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국립 추도시설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주도로 다양한 민간 시설들이 건립되어 국가폭력이나 국가동원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추도와 기념을 시작했다.[33] 큰 틀에서 이 시설들은 국가폭력의

32) 1차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추도시설 설치 사례에 대해서는 윈터를 참고. Jay Winter, *Sites of memory, sites of mourning: The Great War in European cultur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차대전 이후부터 동독 시기까지 독일의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뎀프스를 참고. Lorenz Demps, Die Neue Wache: Entstehung und Geschichte eines Bauwerkes, Berlin: Militärverlag der Deut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8.

33) 제주 4.3 평화공원, 일본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대만 2.28 평화기념공원, 독일의 홀

희생자를 추도하고 전쟁과 폭력을 비판하며 평화와 반전(反戰)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최근의 흐름과 비교할 때, 유엔기념공원에서는 반전·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 지켜낸 평화가 강조된다는 점이 명백하며, 희생의 크기는 역설적으로 희생을 통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유엔기념공원은 본래 군사묘지로 건립된 공간이며, 한국전쟁은 냉전의 출발점과도 같은 전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쟁에서의 승리를 강조하는 인식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유엔기념공원에 기념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0년대 역시 냉전 대립이 계속되는 시기였으므로, 유엔기념공원에 위치한 기념비에서 냉전 시대의 전쟁인식이 드러난다는 점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전쟁인식은 한국전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역사적 공간의 특징으로서는 흠결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유엔기념공원이 군사묘지를 넘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냉전 시기의 전쟁인식을 무비판적, 관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유엔기념공원 인근에 건립된 유엔평화기념관은 군사묘지라는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엔기념공원과 달리 동시대적 문제의식이 반영된 전시 및 행사를 통해 유엔기념공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현시점까지 유엔평화기념관은 유엔기념공원을 보완하거나 전쟁인식을 교정하기보다는 냉전적 인식을 재생산하는 역

로코스트 상기조형물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국가폭력을 고발하는 기념시설의 아시아 사례에 대해서는 김민환을 참고. 김민환,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독일 홀로코스트 상기조형물 사례에 대해서는 Leggewie and Meyer를 참고. Claus Leggewie and Erik Meyer. *Ein Ort, an den man gerne geht: Das Holocaust-Mahnmal und die deutsche Geschichtspolitik nach 1989*, München: Hanser, 2005.; 독일(함부르크) 사례에 대해서는 Tomberger를 참고. Corinna Tomberger, *Das Gegendenkmal : Avantgardekunst, Geschichtspolitik und Geschlecht in der bundesdeutschen Erinnerungskultur*, Bielefeld : Transcript, 2007.

할에 머물고 있다. 유엔평화기념관에서는 한국전쟁의 경과 및 유엔의 활동상을 전달하면서 한국전쟁기 그리고 냉전기의 피아 식별이 반영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일부 공간에서는 한국전쟁 중의 유엔군 전쟁영웅(주로 미군 장성)에 대한 전시를 제시하고, 전쟁 중 사용된 장비를 전시하는 등 전쟁박물관에 상응하는 전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 유엔을 통한 국제협력 등 한국전쟁과 관련 없는 유엔 관련 전시의 비중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34] 이 점에서 현재 유엔평화기념관은 기능이나 의미 측면에서 유엔기념공원의 확장 내지 반복에 불과하며, 유엔기념공원과 마찬가지로 기념의 동시대성과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4. 인접 도시공간과의 연계

1951년 조성 당시 유엔군 묘지는 도시의 외곽, 인가가 적은 지역에 들어섰다. 하지만 부산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묘지 일대가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되었고, 이 과정에서 묘지관리 주체와 도시개발 주체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는 이미 50여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오래된 문제로, 부산시는 묘역의 정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묘지 주변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유엔기념공원이 '도심 속 녹지'로서 갖는 가치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도시공간의 일부로서 묘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묘지 이전이나 개발 허가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고자 했다.

1970년대 이래 유엔기념공원은 녹지이자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나

34) 유엔평화기념관은 4개의 상설전시관을 운영중인데, 그 중 3개 전시관이 한국전쟁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나머지 전시관의 전시내용 역시 상당부분 유엔평화유지군(UNPKO)에 할애되어 있어 군사적 색채가 강하다. 전시구조 역시 유엔군 장병에게 편지쓰기 체험이나 평화유지군에게 편지쓰기 체험 등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가 내·외국인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기념일에는 의례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일상적 차원에서는 이 지역 도시공간의 일부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유엔기념공원 주변에 조성된 녹지 및 문화시설들과 유엔기념공원은 물리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단절되어 있다. 유엔기념공원에서는 묘지의 정숙성을 위해 폐쇄성과 고립성을 강화하는 조경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위해 묘역 주변을 펜스로 두르고 이를 따라 수목을 가꾸었다. 그 결과 유엔기념공원은 묘역에 인접한 다양한 녹지와 물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유엔기념공원 주변에 유엔평화공원과 유엔조각공원 등이 조성되었지만 이 공간들과 묘역 사이는 펜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새로 조성된 공원들의 명칭을 제외하면 시설들 사이의 연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유엔기념공원의 존재로 인한 지역개발 지연의 보상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배려를 통해 부산박물관과 부산문화회관이 유엔기념공원과 인접한 대지에 건립되었지만,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기념공원과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5]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유엔기념공원과 주변 시설들이 의례, 전시, 공연,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밀접한 연계 하에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문화인프라의 공간적 집적은 상호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문화시설들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거나 서로의 기능을 보완한다.[36]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남구 등 유엔기념공원이 속한

35) 유엔기념공원 주변에 문화시설이 건립된 것은 도시계획의 일부였지만, 유엔기념공원 측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이나 주변 도시공간과의 연계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에 따라 인근 문화시설의 시민참여행사에서 확성기 사용이 묘역의 정숙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유엔기념공원과 주변 문화시설 사이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발견된다.

36) 이병민,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지역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국토 : planning and policy』 261, 2003, 54쪽.

지자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투입하며 정책적 판단 하에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유엔기념공원을 의미상의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자산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 사이에 연계를 조성할 수 있는 틀을 정교화하는 완성도 높은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에 보수적인 유엔기념공원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밖의 실현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실용적인 판단 역시 필요하다.

5. 소결: 유엔기념공원의 구조적 문제점

이상의 분석과 같이 유엔기념공원에서는 묘지, 도시공간, 기념시설의 정체성이 상호 충돌함에 따라 의미구조와 공간구성 사이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며 그에 대한 개선을 요한다.

첫째, 유엔기념공원의 공간구성은 한국인 방문객이 이 공간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현재 이 공간은 시민 방문객을 위한 기념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경내 공간구성에서는 정치적 의례의 공간이자 유가족을 위한 추도의 공간인 군사묘지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 한국인은 외국인이 묻힌 군사묘지에서 추도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념에 있어서도 전쟁의 피해자이자 도움의 수혜자라는 수동적인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한국인이 전쟁의 한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 내지 수혜자의 자리에 위치지워지는 유엔기념공원에서, 한국인 방문객은 전쟁의 의미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숙고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추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유엔

기념공원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공간에서는 '외국인의 묘지'라는 특징이 매우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파악되며, 이 특징은 이 공간의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압도할 만큼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이 외국인의 묘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 방문객도 공감할 수 있는 의미와 해석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성과 동시대성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의 죽음으로부터 한국인도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 전달해야 하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전쟁의 기억을 수용하기 위한 동시대적 요소를 제시해야 한다. 동시대성과 보편성이 확보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차후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의 외국인 방문객, 나아가 한국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중국인 방문객의 공감가능성 역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묘역의 의미에 대한 설명 및 전시내용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묘지에 안장된 전몰장병의 다양한 성격을 포괄할 수 있는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추모관과 전시관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실제 묘역 안장자들의 성격에 잘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례들의 다양성을 각각 소개하는 방법, 또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포괄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유엔기념공원의 의미와 방향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묘역 내 여러 곳에서 제시되고 있는 미군 중심의 서사는 수정, 혹은 추가적인 설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중심의 유엔군 활동을 통해 이 공간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냉전의 산물인 이상 한국전쟁 전몰장병의 묘지 및 이 묘지에서 거행되는 의례 역시 태생적으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아군 진영의 가치를 강조하는 등 냉전 이데올로기를 반복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 현재적 의미가 떨어진다. 따라서 냉전기의 전쟁을 탈냉전기에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주변의 공간이나 다른 기념시설과의 밀접한 연계가 미비하다. 인근 도시공간, 기념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이뤄지는 것은 유엔기념공원뿐 아니라 이 일대가 입체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이를 통해 유엔기념공원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주변 기념시설들과 보편적이고 동시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연계를 구축한다면, 한국전쟁의 기억이나 희생의 맥락 등을 현재적 관점에 맞게, 방문객의 감정과 눈높이에 따라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에 있어 유엔기념공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개선을 위한 제언

1. 공간 개선의 방법론적 전제

한국전쟁기에 만들어진 유엔기념공원은 부산, 나아가 한국의 현대사에서 역사성, 상징성을 가지는 공간이다. 또한 이 공간은 유엔을 통한 국제협력의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공간은 한국인 방문객에는 이국적인 조형과 공간구성, 그리고 외국인들의 묘지라는 점에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곳이다. 또한 냉전기의 역사인식을 전달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생경함을 느끼게 되는 곳이다. 이 점은 묘지로서, 도시공간의 일부로서 존재해 온 유엔기념공원이 기념과 교육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현재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조건들을 공간 개선의 방법론적 전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의 기억을 전달하는 역사적 공간이며, 유일한 유엔 관할 하의 유엔군 묘지이자 유엔군과 관련된 국내·외 의례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해 온 추도시설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공간이 갖는 가치는 새로운 시설로는 대체가 어려우며, 향후 개선방안은 이 공간의 가치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이 공간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유엔기념공원이 시민 방문객을 위한 기념시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지금까지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이 공간이 외국인이 묻힌 곳이므로 전몰장병과 시간적,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는 방문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념의 동시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냉전기의 전쟁을 탈냉전기에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몰장병이나 유가족, 그리고 참전장병에 대한 예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유엔기념공원의 개선은 한국인 방문객이 보다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점과 별개로, 유엔기념공원의 의례나 참배시 외국인 전몰장병 유가족이나 참전장병에게 제공해 온 예우는 유지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시설 개선을 꾀하더라도 유엔기념공원에 안장자를 둔 유가족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도시설은 전몰장병의 유가족에게 희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명예를 부여함으로서 그들이 입은 손실을 위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유가

족이 추도시설에 대해 갖는 친밀한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선을 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유엔기념공원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유엔기념공원의 직접적 변화를 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 공간의 시설 변화를 위해서는 각국 대사급으로 구성된 관리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 방안은 행정적 소요가 크고 국가간 입장 조율이 어려울 수 있기에 비현실적이다.[37] 또한 유엔기념공원 및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통한 역사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여전히 한국전쟁에 대한 냉전적 역사인식의 이념적 구조가 강력하고, 전몰장병의 묘지라는 조건도 전쟁인식의 성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다. 묘역 자체의 변화를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 등의 수단을 통해 역사인식을 개선한다는 대안은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므로 현실성이 없다.

2.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유엔기념공원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 연구는 유엔기념공원에서 발견되는 공간구성 및 의미구조상의 문제분석 및 공간 개선을 위한 방법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유엔기념공원의 개선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엔기념공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시설들에 대한 연구가 이

37) 1970년대 관리위가 조직된 이후, 관리위는 각국 대사급의 대표로 구성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차관보급의 대표가 파견된다. 실무는 관리위에서 임명한 관리처장이 총괄하며, 관리위는 연 1회의 총회를 진행하여 중요 사안이나 예산 등을 심의, 결정한다.

루어져야 한다. 유엔기념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에 대한 추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국가적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들에 대한 추도는 어느 국가에서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유엔기념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에 대한 추도는 왜 외국인을 추도해야 하는지, 외국인의 죽음이 국내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로부터 어떤 의미나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수반한다. 따라서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유엔기념공원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추도대상으로 삼는 국립 추도시설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과 자국민을 함께 추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베를린 소재의 국립 추도시설 노이에 바헤(die Neue Wache)가 존재한다.[38] 다른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유엔기념공원의 특징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사례 사이의 공통점을 개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념의 동시대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엔기념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몰장병 유가족을 위한 추도는 이 공간의 구체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비유가족 방문객을 대상으로 상정하는 기념시설로서, 유엔기념공원이 어떤 목표를 가진 공간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념이 어떤 동시대적 의의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방문객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점에서, 전쟁의 기억을 전달하는 이 공간이 어떤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

38) 노이에 바헤는 1816년 건립된 건축물로, 1931년 이후 독일의 무명용사묘지로, 1993년 이후에는 전쟁과 압제의 모든 희생자를 추도하는 추도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노이에 바헤를 국기, 국가, 국장과 함께 국가적 상징의 하나로 소개하며 중요성과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연방내무부 웹페이지 http://Protokoll-Inland.de/ (검색일: 2019년 5월 20일).

요하다. 동시대성을 확보한 기념은 과거의 기억을 활성화하여 공동체의 공적 자산으로 승화시킨다. 이는 방문객이 기념공간의 목적 및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능동적, 적극적 수용을 이끌어내고, 역사 교육 차원에서도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유엔기념공원은 외국인의 묘지라는 점에서, 또한 냉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인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방문객들과의 거리감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현시점의 방문객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 공간이 추도시설로서, 나아가 기념과 교육의 장소로서 갖는 가치를 제한하는 일이 된다.

셋째, 유엔기념공원과 관련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 유엔기념공원에서는 자유, 평화, 유엔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 키워드들은 보편성을 지닌 가치로서가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혹은 냉전적 진영구조 하의 이데올로기적 구호로서 제시되어 그 해석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 가령 '유엔'이라는 키워드는 평화유지나 국제협력 등 다양한 현재적 의제와 관련되어 있고, 국가간 협력이라는 점에서는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갖는다. 하지만 유엔기념공원과 유엔평화기념관에서는 한국전쟁과 연합군 참전을 중심으로 이 키워드의 해석과 적용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협력이나 자유, 평화를 비롯한 키워드들은 한국전쟁이라는 맥락과 별개로 충분한 설득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전쟁과 유엔기념공원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유엔기념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념이 언제나 현재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동시대성과 보편성을 함께 고려할 때, '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유엔기념공원의 의미를 재편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을 지닌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우선, 부산시가 유엔평화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평화

라는 키워드를 이미 제시하였으므로, 유엔기념공원 일대에서 평화는 낯설거나 이질적인 가치가 아니다. 또한 평화는 누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며, 평화 구축 및 유지를 위해 개개인은 물론 국가나 단체 등 여러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다. 이 가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나아가 한국전쟁 당시의 적국이었던 중국이나 북한도 포괄할 수 있다. 또한 평화는 유엔의 목표이기도 하다. 평화유지활동,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지원, 긴급구호, 문화의 보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유엔 및 그 산하 기구들은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

특히 '평화'는 한국전쟁에서의 유엔군의 협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이 성취할 수 있었던 결실이므로, 참전을 기억하는 장소인 유엔기념공원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도움 속에서 평화를 성취했고, 이제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받는 위치의 국가의 시민이라는 점에서, 평화라는 키워드는 한국인 방문객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갈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기의 임시수도로서 험난한 시기를 거쳤던 부산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평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39] 또한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재편이 현재 유엔기념공원의 기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전쟁과 희생을 통해 성취한 평화가 아니라, 희생에 대한 애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지켜나가는 미래지향적 목표로서의 반전・평화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방문객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 및 공간구성에 대한 고

39) 2015년부터 부산광역시는 한국전쟁기 '피란수도'로서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pr/heritage0101(검색일: 2019년 8월 2일).

민이 필요하다. 어느 한 장소를 찾은 방문객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해당 장소가 전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기억을 가공, 활용하여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념공간은 다양한 상징과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방문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깊은 수준의 공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 중 건립된 군사묘지이며, 한국전쟁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공간 자체가 갖는 진실성과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구성을 통해 공간의 의미에 개입하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각국 군사묘지는 물론 유엔기념공원의 공간구성 역시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국가중심주의를 창출했던 전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공간이 상징하는 전쟁인식과 역사인식을 교육을 통해, 혹은 정치문화의 개선을 통해 바꿔낸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통해 방문객의 인식과 경험을 바꾸어나가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현시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유엔기념공원이 전하는 전쟁기억에 개입하고, 이를 가공, 활용하여 우리 시대의 공적 가치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접한 도시공간 및 주변 시설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주변 시설들은 방문객에게 유엔기념공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또다른 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 주변의 추도시설들과의 의미 중첩을 통해 단일한 역사인식을 제시하고, 서로가 서로의 해석의 준거가 되는 구조를 이룬다. 이는 시설의 목표와 의의를 더 잘 설명하는 방법인 동시에, 다양한 공간을 통해 방문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현재 유엔기념공원은 주변의 공간들과 물리적으로나 의미상으로 단절되어 있으므로 복합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보편적, 동시대적 가치에 대한 합의 하에서 이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시설들이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실적인 이유로 유엔기념공원 내부 공간의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주변 시설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는 것은 유엔기념공원의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김민환,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선미, 「재한 유엔기념공원의 조성 경위와 관리의 성격」,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서울: 선인, 2013, pp. 66-106.

백영제, 「공원의 공간 구성 및 전시 조형물의 특성」,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서울: 선인, 2013, pp. 193-216.

우신구, 「유엔기념공원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조」,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서울: 선인, 2013, pp. 161-192.

이병민,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지역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국토:planning and policy』 제261권 0호, 2003, pp. 53-63.

이석조, 『(젊은 영혼들과 함께 한) 천일간의 백서: 재한유엔기념공원』, 부산: 다찬, 2008.

하세봉, 「중국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 항미원조기념관의 경우」,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서울: 선인, 2013, pp. 217-250.

Demps, Lorenz, *Die Neue Wache: Entstehung und Geschichte eines Bauwerkes*, Berlin: Militärverlag der Deut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8.

Hettling, Manfred & Jörg Echternkamp(ed.), *Gefallenengedenken im globalen Vergleich. Nationale Tradition, politische Legitimation und Individualisierung der Erinnerung*, Berlin: De Gruyter Oldenbourg, 2013.

Leggewie, Claus and Erik Meyer. *Ein Ort, an den man gerne geht: Das Holocaust-Mahnmal und die deutsche Geschichtspolitik nach 1989*, Munchen: Hanser, 2005

Mosse, George L., *Fallen Soldiers: Reshaping the memory of the World W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Winter, Jay, *Sites of memory, sites of mourning: The Great War in European cultur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Tomberger, Corinna, *Das Gegendenkmal : Avantgardekunst, Geschichtspolitik und Geschlecht in der bundesdeutschen Erinnerungskultur*, Bielefeld : Transcript, 2007.

2. 신문기사

경향신문, 1968년 10월 24일, 「유엔墓地 더럽혀」.

동아일보, 1973년 10월 22일, 「觀光地로 바뀌는「유엔墓地」」.

한겨레신문, 2004년 6월 17일, 「한국 온 프랑스 문화사학회장 파스칼 오리 교수」.

한겨레신문, 2006년 6월 29일, 「이름없이 부서진 이들 하나하나씩 불러보자」.

3. 인터넷 자료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 http://unmck.or.kr/ (검색일: 2019년 6월 8일)

독일 연방내무부 웹페이지, http://Protokoll-Inland.de/ (검색일: 2019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pr/heritage0101 (검색일: 2019년 8월 2일)

투고일 : 2019. 06. 10. **심사완료일 :** 2019. 07. 05. **게재확정일 :** 2019. 07. 25.

| Abstract |

Multi-layered Identity of the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and its structural problem

Chung, Sung-Youn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was constructed as a military cemetery of the United Nations Army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periods of urban development of Busan, its location found itself in urbanizing periphery and the cemetery became a part of urban landscape. In 2000 the role of the cemetery was broadened to a place of commemoration.

Three identities of UN Cemetery such as cemetery, urban green zone and memorial, have been not in accordance with one another. This cemetery as a place of mourn was divided from the area of daily life, but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the place's identity as a *Cemetery* was hidden or eased, and instead the space has been recognized as part of *urban space*. Since the 2000s, the space has been reorganized as a *memorial* for visitors other than bereaved families.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cemetery remain strong in this space.

Based on this spatial analysis, the study pointed out that spatial composition and semantic structure of the UN Memorial cemetery function as the reasons of the structural problems, which weaken the persuasiveness of the cemetery as a commemorative space.

To suggest guidelines for further research to build a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recommends maintaining its historical and representative reputation, getting the main value of the site to be reinterpreted by universal and contemporary dimension, and enhancing the

network with its neighbor institutions.

Keywords: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Military Cemetery, Memorial, Korean War, Busan